

강릉시 어메니티 지표선정과 활성화 방안

김남호 · 조태동* · 이충연* · 강윤희*

강릉시청,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2007년 10월 22일 접수; 2008년 1월 15일 채택)

A Study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Amenity and the Activation Plan in Gangneung

Nam Ho Kim, Tae Dong Jo*, Chung Yoen Lee* and Yun Hye Kang*

Kangneung city government, Gangneung 210-703, Kore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Kangneung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10-702, Korea*

(Manuscript received 22 October, 2007; accepted 15 January, 2008)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grasp the recognition of the amenity of the university students residing in Gyo-dong residential area in Gangneung city, the local residents residing in Daehag-ro which is near Jungang-ro in downtown and the public servants related to city development in Gangneung city office and thereby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amenity of Gangneung city.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university student group around Gyo-dong residential area mostly recognized the amenity and the local residents around Daehag-ro showed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amenity and some of related public servants were found to be ignorant of the term amenity. Also, the priorities of amenity indexes identified from these 3 groups commonly showed aliveness requiring green lands and watercourses on top but 2nd priority of each group tended to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rough the research result as abov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plan to improv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amenity is necessary. Second, green lands and watercourses that were selected by all of the 3 groups as ranking no. 1 should be secured. Third, the value of amenity resources should be evaluated. Gangneung city is a city where mountains and the sea are harmonized together granting abundant god blessed natural resources. But if Gangneung city would imprudently reclaims the excellent god blessed natural environment under the good title of city and housing lands development, its ranking in city competitiveness evaluations will be expected to continue descending. Therefore, as proposed in this research, the thing that has to be implemented with first priority for amenity Gangneung city is the execution of amenity policy to secure the identity of Gangneung city and the aspect of regulations or systems should also be pursued together with the policy.

Key Words : Evaluation Indicator, Amenity, Gangneung, Living Environment

1. 서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활환경에 대한 질적 향상 욕구가 높아져 주변 환경의 질을 높이며 쾌적한 환

경을 확보해 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향 역시 어메니티(Amenity: 쾌적성)의 중요성에 역점하고 있다¹⁾.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계획가 윌리엄 홀포드경은 어메니티 개념에 대하여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으로 정의했는데²⁾ 이것은 악화되어온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시사하는 바 크며, 이러한 개념은 도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환경사상으로 자리하고 있다¹⁾. 일본의 경우 어메니티에 대해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나 자연환경의 정서, 여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개 환경의 쾌적성으로 대응하여 사용하고 있다³⁾.

우리나라에서는 '쾌적한' 혹은 '양호한'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헌법(제35조 환경권), 국토이용관리법(제1장 제1조의 2), 도시계획법(제1장 제1조), 도시공원법, 도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포괄적 의미에서 환경사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직 계획의 실천수단으로는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서 기존의 공청회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민참여의 개념과 어메니티 개념이 접목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도시 간 글로벌 경쟁에서도 도시환경의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써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세계 각 주요 도시는 경쟁력 제고와 도시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써 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써 공해로 악명이 높았던 철강도시 피츠버그는 80년대부터 도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로 변모했으며, 싱가포르는 'Clean City'를 슬로건으로 수십 년간 경관을 정비한 결과 살기 좋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뀌었다. 핀란드의 헬싱키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 지식, 문화, 국제화를 키워드로 한, 「2002년 헬싱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⁴⁾.

한편, 본 연구대상지인 강릉시의 경우 산업정책연구원(2006)에서 실시한 국내 75개 도시의 현재와 미래의 도시경쟁력 평가 결과 43위에 머물렀는데, 이러한 사실은 강릉시의 도시경쟁력 수준에 대하여

전국 도시에서의 입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어메니티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었으므로 어메니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적용해야 할 위치에 있는 관계자 역시 대부분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해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근간으로 본 연구는 강릉시의 신시가지인 교동택지와 구시가지인 대학로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안을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강릉시 교동택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시가지의 중앙로 주변인 대학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그리고 강릉시청 도시개발관련 공무원 등 3그룹을 대상으로 어메니티의 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강릉시의 어메니티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강릉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메니티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범위

최근 강릉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청정생태도시, 관광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의 범위는 강릉시의 교동택지의 신시가지와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강릉시의 어메니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강릉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의 교동택지의 대학생 그룹과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의 지역주민 및 강릉시 개발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학생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반적인 어메니티 수준을 알아보고, 강릉시민이 느끼는 어메니티의 위계를 정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강릉시 개발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메니티의 개념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전문가적 입장에서 향후 강릉시 계획에 있어서 어메니티 요소의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계획할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강릉시 교동택지 개발관련 계획들과 일반현황 그리고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현황파악을 통해 첫째, 어메니티 용어 사용여부, 둘째, 어메니티 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강릉시에 어메니티적 요소 및 철학이 어느 정도 분포·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는 강릉시 교동택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그룹과 대학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그룹의 어메니티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어메니티에 대한 이해정도와 어메니티 요소 중 강릉시 어메니티를 위해 가장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요소, 주거 지역의 어메니티 점수를 산정함으로써 향후 강릉시 어메니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강릉시 개발관련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향후 강릉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원가로서의 교동택지의 신시가지와 대학로를 중심으로 강릉시의 중심이 되는 한 구시가지에 대한 계획시 어느 정도 어메니티란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와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10.0 for Window용 통계 프로그램(SPSS Institute Inc., 2000)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지의 일반 현황

3.1.1. 신시가지의 교동택지

기본계획 분석 시 교동택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서 어메니티 반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 2005년도 강릉시의 ‘강릉 교동Ⅱ지구 택지개발사업 백서작성 및 효과분석 용역 보고서’를 분석 후 교동택지의 어메니티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어메니티 사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어메니티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쾌적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용어는 교동택지 기본계획안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에서 2회, 가구 및 획지분할계획에서 1회, 교통계획에서 2회, 공원·녹지계획에서 2회 사용되

Table 1. Whether the term amenity is used or not

Item	Number of times of using the term amenity itself	Number of times of using the term comfortableness which is similar to amenity	Examples of use
Living zone plan	×	×	×
Land use plan	×	2	To create the beauty of city shape by pursuing the harmony of skyline with surrounding ground configurations and existing town. To create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s by securing abundant green land spaces.
Unit and lot partition plan	×	1	To enhance the safety and comfortableness of residences by improving the quality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s.
Traffic plan	×	2	To secure comfortable walking path systems connected to facility use and green land systems. To provide the users of commercial zones with convenience and comfortable resting spaces
Park·green land plan	×	2	2 vicinity parks and 6 children's parks are planned for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s and enhanced beauty of city
Other facility plans	×	×	×
Supply & disposal facility plan	×	×	×

었다.

일반적으로 어메니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 어메니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추구되는 관점이 다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 제약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동성, 주거공간의 온도 조절 등을 중시하는 편리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했으나 이는 산업혁명 이후 공해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당면과제가 되었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환경성의 회복이 중시되었다. 1893년 개최되었던 시카고의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건물, 공원 등을 고대로마나 근대 유럽의 걸작과 맞먹는 도시에술로 인식하게 되는 심미성을 가지고, 도시의 건축물과 가로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성에 호소하는데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21세기에 들어서서는 획일화된 현대도시에 대한 반성에서 도시의 정체성 회복을 추구하는 문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5~7)}.

이처럼 시대에 따라 도시 어메니티 욕구는 편리성(편리성 개선), 환경성(환경성 회복), 심미성(심미성 추구), 문화성(문화성 확립) 순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지역이 좋은 환경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어메니티의 질이 개선되고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⁴⁾.

따라서 교통택지의 어메니티 유형은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으로 구분하였다. 강릉시의 '강릉 교통II지구 택지개발사업 백서작성 및 효과분석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통택지의 경우 편리성과 환경성이 심미성과 문화성보다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편리성의 경우 각 공간의 구획이 대부분 격자형으로 조성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매우 효율적이며, 각종 상업시설이 다량 분포되어 있었다. 환경성의 경우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완충녹지, 녹지 및 광장이 전체의 5.4%로 다른

요소들보다 그 중요성이 크게 의식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계획될 택지개발에 환경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화성 부문에서는 종교시설 1개소와 문화원 1개소가 전부이고, 심미성 부문에서는 많은 고층아파트가 스카이라인을 저해하고 있지만, 거리의 완충녹지와 가로수가 좋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3.1.2. 구시가지의 대학로

강릉시 최초의 시가 형성지로, 강릉시민들의 유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강릉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나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차량들의 교통혼잡과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이다. 반면 각종 종교시설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동의 문화요소로는 임영관지, 오규환 가옥, 안동 권씨 사당 등 역사적 문화자원이 3개소, 여기에 도지정문화재인 은행나무가 한 그루가 존치하고 있었다.

3.2. 어메니티에 관한 의식조사

3.2.1. 신시가지의 교통택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그룹

강릉시 교통택지 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는 총 55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29명(52.7%), 여성이 26명(47.3%)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설문되었고, 남성의 평균연령은 24.2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22.5세였다.

설문조사 결과 '어메니티'라는 용어의 인지 여부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알고있다'가 35명(63.6%), '없다(모른다)'가 20명(36.4%)이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알고있다'는 응답이 18명(32.7%), '없다(모른다)'는 응답이 11명(20.0%)이었고, 여성의 경우 '알고있다'는 응답이 17명(30.9%), '없다(모른다)'는 응답이 9명(16.4%)였다. 어메니티 용어 인지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Class		Frequency(N)	Percentage(%)	Average age(year)
Gender	Male	29	52.7	24.2
	Female	26	47.3	22.5
	Total	55	100.0	23.4

Table 3. Whether the term amenity is recognized

Class		Frequency(N)	Percentage(%)
Whether the term amenity is recognized	Yes	Male	18 32.7
		Female	17 30.9
	No	Male	11 20.0
		Female	9 16.4
Total		55	100.0

의 남녀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직·간접 교육을 통해 어메니티 용어를 접해볼 기회가 많았을 것이라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Table 4에서 보듯이 현재 거주하는 곳의 쾌적성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24명(43.6%), ‘그렇다’가 17명(30.9%)으로 대체적으로 쾌적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우 쾌적하다고 응답한 수(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13명으로 남성의 응답 수 7명보다 더 많아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쾌적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Table 5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강릉시의 향후 계획시 가장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어메니티’ 개념에 포함되는 단어의 선택 1, 2, 3순위를 정하는 질문에서 1순위로 생명성(녹지와 수변이 어울린 자연과의 공생)을 41명(74.5%)이 선택하여 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 문화적 시설과 설비를 31명(56.4%)이 선택하여 64점, 3순위로 풍토성(자연

환경과 풍치)을 20명(36.4%)이 선택하여 37점을 나타냈다. 그밖에 문화성, 여가, 역사적 환경, 보건, 복지, 디자인, 활력, 안전성, 건축물, 기타, 향토애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 결과 강릉시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어메니티는 녹지와 수변이 어울린 자연과의 공생, 즉 생명성임을 알 수 있었다.

3.2.2. 구시가지의 대학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그룹

강릉시 중앙동 반경 500m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는 총 49명이었으며, 성별은 여성이 29명(55.1%), 남성이 22명(44.9%)이었다. 또한 연령대는 40대가 17명(34.7%), 50대가 16명(32.7%)으로 40~50대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력으로는 고졸이 23명(46.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남녀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별 남녀

Table 4. The extent of comfortable feeling

Class	Comfortable feeling					Total
	Very Good	Good	Moderate	Bad	Very bad	
Frequency(N)	3	17	24	10	1	55
Male	1	6	14	7	1	29
Female	2	11	10	3	0	26
Percentage(%)	5.5	30.9	43.6	18.2	1.8	100.0

Table 5. Priorities of amenity concepts in city plans

Class		Aliveness	Cultural facility	Natural features	Cultural nature	Leisure	Historical environment	Health care	Welfare	Design	Vitality	Safety	Building	Love of home region	Others
N	Valid	41	31	20	18	11	10	8	9	5	5	3	2	1	2
	Percentage(%)	74.5	56.4	36.4	32.7	20.0	18.2	14.5	16.4	9.1	9.1	5.5	3.6	1.8	3.6
Total		99	64	37	35	18	18	18	15	11	7	3	3	2	2

Table 6.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Class	Age					Education				Total
	20s	30s	40s	50s	60 or older	Middle school graduation or lower	High school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Graduate school graduation or higher	
Frequency(N)	7	5	17	16	4	7	23	18	1	49
Male	4	2	7	7	2	2	6	13	1	22
Female	3	3	10	9	2	5	17	5	0	27
Percentage(%)	14.3	10.2	34.7	32.7	8.2	14.3	46.3	36.7	2.0	100.0

차이를 비교해 보면 대졸이상의 학력은 남성이 14명이고, 여성은 5명의 차이를 나타냈다.

설문조사 결과 ‘어메니티’라는 용어의 인지 여부는 ‘알고있다’가 20명(40.8%), ‘없다(모른다)’가 29명(59.2%)으로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한편, 설문조사 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어메니티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알고있다’라고 선택한 경우가 다소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용어에 대한 인식여

부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쾌적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30명(61.2%)이 ‘보통이다’를 선택하였다(Table 8). 남녀 모두 대부분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쾌적하다거나 불량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다.

Table 9에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강릉시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어메니티’ 개념에 포함되는 단어의 선택 1, 2, 3순위를

Table 7. Whether the term amenity is recognized

Whether the term amenity is recognized	Class		Frequency(N)	Percentage(%)
	Yes	Male	Female	9
Male			11	22.4
No		Female	13	26.5
		Male	16	32.7
Total			49	100.0

Table 8. The extent of comfortable feeling

Class	Comfortable feeling					Total
	Very Good	Good	Moderate	Bad	Very bad	
Frequency(N)	0	8	30	11	0	49
Male	0	3	13	6	0	22
Female	0	5	17	5	0	27
(%)	0	16.3	61.2	22.4	0	100.0

Table 9. Priorities of amenity concepts in city plans

Class	Aliveness	Cultural facility	Natural features	Cultural nature	Leisure	Historical environment	Health care	Welfare	Design	Vitality	Safety	Building	Love of home region	Others
	Valid	25	28	19	15	13	7	7	8	7	6	4	5	0
Percentage(%)	51.0	57.1	38.8	30.6	26.5	14.3	14.3	16.3	14.3	12.2	8.2	12.2	100.0	10.2
Total	65	50	41	29	22	18	13	13	13	12	10	8	0	7

정하는 질문으로써 1순위로 생명성을 25명(51.0%)이 선택하여 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 문화성(전통, 축제)을 28명(50.0%)이 선택하여 50점, 3순위로 문화적 시설과 설비를 19명(38.8%)이 선택하여 41점을 나타냈다. 그밖에 역사적 환경, 풍토성, 여가, 보건, 안전성, 디자인, 활력, 향토애, 복지, 건축물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로에서도 교동택지와 마찬가지로 녹지와 수변이 서로 공생하는 것을 1순위로 선택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2, 3순위와 그 밖의 순위에서는 문화성과 문화적 시설, 역사적 환경이 상위에 위치한 것으로부터 판단해 볼 때 생명성과 더불어 문화성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3. 교동택지와 대학로에서의 어메니티 점수 평가 비교

신시가지인 교동택지의 대학생 그룹과 구시가지인 대학로의 지역주민 그룹 간 어메니티 점수의 평가 결과 신시가지인 교동택지의 대학생 그룹은 환경성이 64.2%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그 다음은 편리성이 61.0%, 심미성이 55.3%, 문화성이 44.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Table 10).

이와 같이 교동택지의 대학생 그룹의 경우, 환경성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환경성의 세부요소 중에서 특히 ‘녹지와 접촉이 용이한가?’의 항목에서는 주변의 근린공원이 다수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고, ‘공기·물이 깨끗한가?’의 항목 역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이 지역의 대부분이 자연요소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형성에 따라 주민들은 공기와 물이 깨끗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예측되었다. 편리성에 대하여 ‘차량통행이 수월한가?’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교동택지만의 격자형 도로형태로 인해 수월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심미성에서는 ‘가로수나 식재된 나무들의 상태가 좋은가?’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화성에서 ‘극장·미술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충분한가?, ‘길거리 축제 등 문화행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가?’의 항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동택지의 문화적인 요소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없는 상태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구시가지의 대학로 지역주민 그룹에서는 편리성이 63.4%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환경성이 54.9%, 문화성이 54.0%, 심미성이 52.7%의 순으로 점수를 받았다. 대학로의 경우, 편리성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편리성의 세부요소 중에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리한가?’의 항목에서는 이동이 활발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버스·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는가?’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 역시 모든 의료시설이 이곳에 밀집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환경성에서 대부분의 세부항목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하여 ‘수변과의 접촉이 용이한가?’의 항목에서만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대학로에 인접해 있는 남대천을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문화성으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멋이 느껴지는가?’의 항목에서는 젊은 층이 멋을 부리며 빈번하게 이용하는 공간에 따라 기인된 것으로 보여지며 ‘길거리 축제 등 문화행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가?’의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심미성은 ‘전봇대나 전선의 상태가 깔끔한가?’와 ‘옥상광고나 입간판의 상태는 깔끔한가?’의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오래전부터 설치된 전봇대나 전선줄과 더불어 상행위상 형성된 간판을 돌보이게 하기 위하여 크고 현란하거나 서로의 경쟁에 따른 입간판 설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10. Comparison of amenity scores between Gyo-dong residential area and Daekag-ro

Class	Cultural nature(%)	Aesthetic nature(%)	Convenience(%)	Environmental nature(%)
Gyo-dong residential area	44.4	55.3	61.0	64.2
Daehag-ro	54.0	52.7	63.4	54.9

3.2.4. 강릉시 개발관련 공무원 그룹

강릉시청 도시개발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는 총 28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18명(64.3%), 여성이 10명(35.7%)으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로 설문되었다. 남녀 평균연령은 남성이 33.3세, 여성이 29.0세로 나타났다.

Table 12에서 본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강릉시청 도시개발관련 공무원의 경우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에서 ‘어메니티’라는 용어의 인지 여부는 ‘알고 있다’가 총 28명 중 16명(57.2%)이었으며, ‘없다(모른다)’가 12명(42.8%)이었다.

이 결과 향후 강릉시의 개발과 보전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해야 할 집행기관인 일선의 공무원 중 40% 이상이 어메니티 용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강릉시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 가장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어메니티’ 개념에 포함되는 단어의 선택 1, 2, 3순위를 정하는 질문에서는 1순위

로 생명성을 13명(46.4%)이 선택하여 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 디자인(색채감각)을 12명(42.9%)이 선택하여 18점, 문화적 시설과 설비는 8명(28.6%)이 선택하였으나 점수로는 18점이 되어 공동 2순위를 나타냈다. 한편, 역사적 환경(유산), 문화성, 건축물이 16점으로 공동 3순위를 나타냈다 (Table 13).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메니티에 대하여 알고 모름을 떠나 우선 요구되는 바는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생명성이라는 점과 최근 경관·간판과 도시 색채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음이 내재되어 위와 같이 디자인이 2순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Table 14에서는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도시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인데, 보통과 약간 부정적이 10명(35.7%) 선택하여 도시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이다’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Table 15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 강릉시 도시환경의 매력적이고 쾌적한 환경(어메니티) 정도에 대한

Table 1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Class		Frequency(N)	Percentage(%)	Average age(year)
Gender	Male	18	64.3	33.3
	Female	10	35.7	29.0
	Total	28	100.0	31.8

Table 12. Whether the term amenity is recognized

Class			Frequency(N)	Percentage(%)
Whether the term amenity is recognized	Yes	Male	11	39.3
		Female	5	17.9
	No	Male	7	25.0
		Female	5	17.8
	Total			28

Table 13. Priorities of amenity concepts in city plans

Class		Aliveness	Cultural facility	Natural features	Cultural nature	Leisure	Historical environment	Health care	Welfare	Design	Vitality	Safety	Building	Love of home region	Others
N	Valid	13	12	8	8	10	7	8	6	4	52	2	1	0	0
	Percentage(%)	46.4	42.9	28.6	28.6	35.7	25.0	28.6	21.4	14.3	17.9	7.1	3.6	0	0
Total		35	18	18	16	16	16	14	13	8	7	4	3	0	0

질문에서는 15명(53.6%)이 보통을 선택하였고, 8명(28.6%)이 쾌적을 선택하였으며, 불쾌와 매우불쾌가 5명(17.8%)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환경은 보통이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강릉시 도시환경을 매력적이고 쾌적한 환경(어메니티)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4명(50%)이 61~80점을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9명(32.1%)이 41~60점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중상위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6).

이 결과 산과 바다에 인접해 있는 강릉시의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미루어 보아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나 60점 이하가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 역시 심각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끝으로, 매력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릉시의 향후 계획시 제도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에서는 필요하다에 무려 25명(89.3%)이 선택하였다(Table 17). 이는 향후 강릉시 도시·자연경관 계획에 있어서 어메니티란 요소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강릉시의 신시가지인 교동택지와 구시가지인 대학로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안을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강릉시 교동택지에 거주하는 대학생, 구시가지의 중앙로 주변인 대학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그리고 강릉시청 도시개발관련 공무원 등 3그룹을 대상으로 어메니티의 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강릉시의 어메니티 개선 방안을 제안코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동택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그룹은 어메니티에 대하여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은 어메니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고, 관련 공무원의 일부는 어메니티 용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그룹에서 확인된 어메니티 지표의 우선순위는 녹지와 수변을 요구하는 생명성이 공통으로 1순위를 나타냈으나, 2순위의 경우 각 그룹별로 다른 경향을 나

Table 14. Quality aspect of general environment of the city

Class	Very positive	A little positive	Moderate	A little negative	Very negative	Total
Frequency(N)	0	6	10	10	2	28
Percentage(%)	0	21.4	35.7	35.7	7.1	100.0

Table 15. The extent to which Gangneung city's environments are attractive and comfortable

Class	Very comfortable	Comfortable	Moderate	Uncomfortable	Very uncomfortable	Total
Frequency(N)	0	8	15	3	2	28
Percentage(%)	0	28.6	53.6	10.7	7.1	100.0

Table 16. Score of Gangneung city's attractive and comfortable environments

Class	1~20 points	21~40points	41~60points	61~80points	81~100points	Total
Frequency(N)	2	3	9	14	0	28
Percentage(%)	7.1	10.7	32.1	50	0	100.0

Table 17. Whether institutional rearrangement would be necessary in planning Gangneung city

Class	Necessary	Not necessary	Don't know	Total
Frequency(N)	25	1	2	28
Percentage(%)	89.3	3.6	7.1	100.0

타냈다. 교동택지의 대학생 그룹은 각종 문화적 시설을,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은 문화성을, 관련 공무원은 디자인을 2순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대학생 그룹의 경우 현재 거주지에 극장이나 미술 전시장과 같은 문화적 요소의 선호를 반영한 결과이며,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경우 축제나 전통이벤트를 선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편 공무원은 최근 강릉시에서 추진 중인 간판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경관적인 측면이 강조된 결과 디자인 항목을 선택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메니티에 대한 개념의 인지가 요구되며, 둘째, 3그룹 모두 1순위로 선정된 녹지와 수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셋째,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평가가 요구된다.

강릉시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다. 이를 근간으로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정생태도시나 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어메니티의 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어메니티 강릉시를 위해 제 1순위로 추진

해야 할 것은 강릉시 정체성 확보를 위한 어메니티 정책과 이와 더불어 강릉시 전반에 대하여 생명성의 일환인 그린 네트워크·비오톱에 대한 조례나 제도적인 측면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酒井憲一, 1998, 21세기 환경사상으로서 백억인의 어메니티, 98'한·일 어메니티 포럼: 6-17. 부산: (사)도시발전연구소.
- 2) 김승환, 변문기, 1991,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4), 101-115.
- 3) 日本 環境情報科學센터(1994), 環境科學, 朝倉書店, 80-81pp.
- 4) 전영옥, 2003, 어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84: 1-24.
- 5) 권용우, 이재준, 김세용, 2001a, 도시쾌적성을 위한 어메니티플랜 계획지표의 개발, 한국 지리교육학회지, 35(4), 351-361.
- 6) 성현찬, 이동근, 1999, 경기도 6개도시의 어메니티 평가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4(3), 125-132.
- 7) 이양주, 1999, 수원시 어메니티 환경의 평가와 개선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4(4), 159-167.